

#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새 국면... 정부협의체·민주 특위 가동



## 2024 KBO 최고의 별... 김도영 MVP 등 3관왕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최우수 선수로 우뚝 섰다.

올 시즌 KBO리그 역사상 첫 '월간 10홈런-10도루'를 시작으로 최연소 '30-30'과 100득점 등을 장식한 김도영은 프로야구 취재기자단 투표 결과 101표 중 95표를 획득하며 프로 3년 차에 KBO리

그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MVP 김도영은 득점(143개), 장타율(0.647) 부문 1위도 차지하면서 한 번에 3개의 트로피를 수집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KIA 제임스 네일과 정해영도 각각 평균자책점(2.53), 세이브상(31개) 수상자로 호명됐다. 유격수 박찬호는 2년 연속 수비상 수상자로 단상에 섰다. <관련 기사 18면>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연내 상생 TF 운영...광주시 독자활동 중지·전남도 적극 협력  
정부도 다음달 광주·전남·무안·국방부·국토부·행안부 참여 실무회의

전남도·무안군과의 생각차이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던 광주시의 '민간·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온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3개월에 걸친 줄기찬 논의구조 확대 요청을 수용하고, 민간·군 공항 이전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국가사업임에도 지역 현안으로 치부하고, 힘도 권한도 없는 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겨온 '민간·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와 정치권의 공식 참여 등으로) 전국 현안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 정부와 민주당 간의 극한의 갈등 상황, 그리고 앞서 진행됐지만 지지부진해오다 가동이 중단된 중앙정부와의 범정부협의체와 과연 이번에는 속도를 내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무안군을 넘어 또 다른 당사자인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참여하기를 했다"

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했다"며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12월 중 국무1차장 주제로 광주·전남·무안군·국방부·국토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9월부터 공항 관련 3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특위' 구성을, 중앙정부에는 '범정부협의체' 재가동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강 시장은 또 "정부와 민주당이 광주시의 요청에 화답함에 따라 '12월 데드라인' 방침을 철회하고, 그동안 무안군을 상대로 펼쳐왔던 시·주도 민간·군 공항 이전 활동도 잠정 연기 또는 중지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광주시는 실제 이날부터 무안군민에게 직접 홍보하는 열린 대화방·무안 미래 비전레비전 토론회·여론조사 중시, 연말로 못 박은 공항 이전 논의의 시한(데드라인) 철회 등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공항 이전 활동을 모두 중단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광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이전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하자고 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강기정 시장이 수차례 제안한 민주당 차원의 '군공항 특위' 구성을 고민하던 중 논의 폭을 더 풍성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군공항에 국한하지 말고 광주·전남의 더 큰 비전을 모색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재명 대표, 사무총장, 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당위원장과의 의견을 교환했으며, 연내에 상생발전 TF 구성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광주시당과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약간의 기초단체장 등을 포함하고 중앙당에서 지원하며 정책 연구 인력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광주시의 불편한 모습을 보여왔던 전남도도 이날 강기정 시장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관련 발표 등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남도는 "광주시 발표를 환영하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범정부협의체와 광주·전남 상생발전 TF에도 참여해 나가겠다"면서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광주시가 무안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과 '무안군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전남도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라남도

# OK! Now Jeonnam

OK! Jeonnam 이제 전남으로 가자

OK! NOW 이제 전남을 주목하자

OK! 이제 전남이 세계로 준비한다

## New Opportunity With

###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

## 춥다, 추워... 광주·전남에 첫 눈

27~28일 1~5cm 눈 예보  
강풍에 체감온도 떨어져

광주·전남 지역에 올해 첫눈이 내리면서 본격 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한반도 북쪽에서 한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가운데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27일 광주·전남에 5~20mm 비가 내리겠으며, 기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광주와 장성, 담양, 구례, 곡성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1~5cm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속적인 한기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30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렸다 그쳤다가 반복하겠으나, 다만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사·군

내에서도 강수형태(눈 또는 비), 적설 등에 차이가 있겠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27일 낮 최고기온은 6~10도, 28일 낮 최고기온은 9~12도에 분포해 평년(11~14도)에 비해 5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겠다. 이에 더해 광주·전남에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26일 새벽 광주·전남 전지역에 발효된 강풍주의보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광주와 장성과 담양 등 일부지역에서는 해제됐다. 하지만 전남 16개 지역에는 27일 까지 강풍주의보가 이어진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눈이 쌓이거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